

Anthony J. Tomasino 박사, 십계명, 9회, 8계명 -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 가르침입니다. 9차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인 관계 계명들이 상처의 심각성을, 아니 꼭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직접성을 점점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죽였다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힌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간통은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졌고, 관계를 해쳤으며,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훔치는 것은 여전히 나쁜 일이지만, 보시다시피 다른 일들만큼 나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구성 과정에서, 말하자면, 직접적인 피해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산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소유할 수 있어야 하고, 건장하고 몸집이 큰 이웃이 함부로 내 집에 와서 잔디 깎는 기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그건 당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지켜야 하며, 이웃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권력자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고대 법전에는 절도 문제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중기 법전에는 간통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함무라비 법전은 절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신전이나 궁정에서 무엇이든 훔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훔친 물건을 받은 사람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신전이나 국가에서 훔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노예의 아들 또는 다른 노예의 아들에게서 은이나 금, 남종이나 여종, 소나 양, 나귀 또는 그 밖의 어떤 것도 증인이나 계약 없이 사거나, 훔친 물건을 팔는 데 동의하면 도둑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집니다.

알겠어요?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고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죠,

그렇죠? 누군가 창문으로 기어들어오는데, 그걸 발견하면 죽이고 바로 그 창문 밑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 데이지 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데이지 꽃이 보일 때마다 “저기 누가 내 집에 도둑질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면 사형에 처한다. 강도가 잡히지 않으면 강도를 당한 사람은 선서하여 손해액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강도가 발생한 지역의 영토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도난당한 재산을 보상해야 한다.

아, 드디어 사형 대신 재정적 처벌이라니. 네, 맞아요.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가진 다른 고대 법전들 중에서 절도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규정을 담고 있을 거예요. 우르남무 법전은 처벌 면에서는 함무라비 법전만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절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분명해요.

구약성경에서도 재산권은 다른 법전들처럼 중요했으며, 십계명에도 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단어, *lo tignov*, 즉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과는 달리, 구약성서에서는 대부분의 절도가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보세요. 누가 절도하면, 누구든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도둑질한 돈을 갚기 위해 팔아야 합니다. 흠친 짐승이 살아 있는 채로 발견되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훔쳤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노예로 팔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영구적인 속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갚는 동안 일시적으로 속박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갚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절도의 한 유형은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납치를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 전체가 원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내려고 할 때, 때로는 더 일관성 있게 보이도록 구절들을 다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관성 원칙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훔치지 말라”는 원래 사람을 훔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절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훔쳤다면, 왜 사람을 훔치겠습니까? 아마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로 팔기 위해서겠죠. 네, 만약 누군가를 훔쳤다면, 노예로 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가져올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팔았든, 아직 가지고 있든, 그들은 분명 죽을 겁니다. 구약성경은 누군가의 자유를, 그리고 아마도 목숨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납치당하거나,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긴 노예가 있다면, 노예 생활에서 자랐거나 전문적인 노예였던 사람들과 같은 존중이나 배려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도둑질에 관한 율법에서 실제로 많이 본떠 볼 수 있는 원칙 중 하나는, 사람이 소유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점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이웃을 살게 해야 할 의무, 배우자를 속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 물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아시죠? 제 물건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물론 중요하지만, 목숨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당신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아니, 당신은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목숨이 당신의 재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서 훔치든 상관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른 고대 법전들 중 일부에서는 하층민이 상층민에게서 훔치면 끝장이라고 했죠. 아시죠? 사원에서 훔치면 끝장이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재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도둑을 함부로 잡아둘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침입하다 잡혀서 맞아 죽으면 혈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도둑 위로 뜬다면 살인자는 혈족죄를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창문으로 기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집에 침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이 있고, 애완동물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밤에 당신 집에 침입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피를 흘린 죄는 없습니다. 당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 집에 침입해서 당신의 오래된 근동식 스테레오를 훔쳐 달아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스테레오가 당신 집 밖으로 기어 나오는데, 당신은 그 모습을 보고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은 동네에 사는 빌이야. 방금 내 스테레오를 훔쳐갔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거리를 행진하다가 빌이 가격표를 붙인 스테레오를 앞에 두고 있는 걸 봤어요. 벼룩시장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빌에게 다가가서 죽여버렸죠.

성경은 네가 살인자라고 말하고, 네가 살인자로서 처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이 체포될 수도 있었고,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너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벌을 받고 복수를 했는데, 이는 당신이 겪은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서는 사람이 재산보다 우선합니다. 몇 년 전인 1995년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셰드릭 배블스라는 젊은이는 새벽 5시 30분에 차 경보기가 울리자 잠에서 깰했습니다. 그래서 배블스는 자동 소총을 꺼내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는 텍사스주 델러스입니다.

어쨌든, 그가 발견한 건 십 대 소년이 차에서 60달러짜리 허브캡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배블스는 그 청년에게 총을 쏘았지만 빗나갔습니다. 청년은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기다리는 도주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도주 차량에 총격을 가하며 총알 세례를 퍼부어 차 안에 있던 15세 소년과 16세 소년을 사살하고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델러스 순회법원은 배블스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죠. 스스로를 성경의 허리띠라고 여기는 텍사스는 이 사건에서 성경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누군가 도둑을

죽이면,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이 소유물보다 우선합니다. 생명은 소유권보다 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둑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에는 절도와 그 처리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절도는 이웃에 대한 모욕이자 그들이 힘들게 번 재산을 빼앗는 행위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는 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아, 창세기에 신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칭하는 멋진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다.

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소유자'를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죠. 시편에서 하나님이 천 개의 언덕에 있는 가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물건들이 어떻게 분배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그 과정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현대 법처럼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도둑질을 구분합니다.

아시죠,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 무력이나 무력 위협을 사용하는 도둑, 그리고 비밀리에 또는 배신을 통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죠. 이런 범죄 중 하나는 강도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절도나 그런 비슷한 범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음, 누군가가 조리대 위에 놓인 무언가를 보고 훔쳐가는 것과,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네 물건을 내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범죄입니다.

물론 성경은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사용하는 자들을 단순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자로 여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생명이 재산보다 중요합니다. '압제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성경은 압제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제자와 그 단어가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압제자를 직원들을 착취하는 대기업가로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히 압제자의 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장 강도 또한 압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무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박범. 그 당시에는 협박이 있었고, 협박범은 압제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절도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악인들, 즉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속인 자들은 물론, 선지자들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고아, 즉 자신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들 또한 압제자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네 이웃을 속이거나 강탈하지 말라. 품꾼의 품삯을 밤새도록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 이, 음, 이 지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해설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서 임금을 뺀고 횡령하는 것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둑질은 왜 잘못일까요? 도둑질은, 음, 꽤 귀엽지 않나요? 특히 도둑놈 같은 놈들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도둑이 마치 영웅처럼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죠. 마치 도둑이 온갖 재물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특히 부자에게서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왜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당연한 답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덜 명확한 원칙이 있는데, 사실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된 것입니다. 덜 명확한 원칙은 도둑질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가서 훔칩니다. 잠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둑이 훔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실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그에게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참으로 비천한 자는 숨결에 불과하고 고귀한 자는 거짓에 불과하도다.

저울에 달아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 합치면 한 줄기 숨결에 불과합니다. 강탈을 신뢰하지 말고 훔친 재물에 헛된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네 재물이 불어난다 해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거나 빼앗는 능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분배하기 위해 정해 놓으신 방식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둑질이 재물을 만들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털털한 녀석이 있었는데, 눈이 가늘게 뜨인 게 보이시죠? 그건 범죄자의 특징이죠. 네, 여기 털털한 녀석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빨랫줄에 걸린 사람들의 옷을 훔쳐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좀 더 안전하게 감금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분배하는 방식을 정해 놓으신 방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요? 음, 그건 바로 '일'이라는 단어, 'W'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싫어하는 단어죠. 사람은 일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일은 우리의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잠깐, 에덴에서는 다들 앉아서 사탕이나 먹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래,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일하기 위해 태어났고, 여기가 바로 낙원이라고. 아니, 인간은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일을 통해 동산을 비옥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19절에 따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어떻게 먹고살겠느냐?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해야 한다."

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일이 고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의 모든 선한 일이 점점 더 쇠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직장이라는 저주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생산하고 받기 위해 일합니다. 저주가 내린 후에도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합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따르면, 게으른 자의 욕심은 그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종일토록 더 많이 원하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그러므로 잠언은 게으른 자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성경은 바로 그 감정을 이어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방법을 창조하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좀 일 중독자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와 일론 머스크는 정말 잘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나눠 줄 것이 있게 하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에게서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꽤 흥미로운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물건을 훔쳐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와 술 취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와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토라에 언급된 여러 종류의 도둑질을 하나로 묶어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요점은 이렇습니다. 도둑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분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에 대한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약탈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절도에 연루될 수 있는, 어쩌면 덜 눈에 띄는 방법들이 있고, 심지어 스스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몇몇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압제자이고, 당신은 그들이 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음, 월마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걱정할 겁니다.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들은 더 이상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훨씬 더 교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월마트에 가서 TV를 사왔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컴퓨터 범죄입니다.

이제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제작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해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누군가 특정 플랫폼에 노래를 올리면, 누군가는 그걸 복사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 열 명과 공유해서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플로피 디스크에 담겨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디스크를 열 번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모두 같은 프로그램을 쓰니까 같이 작업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프로그램들에 너무 비싼 값을 부르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게 당연해"라고 말하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이것 합리화하죠, 아시죠? 하지만 특히 음악 불법 복제는 엄청난 산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업계의 유명 인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를 보는 건 소규모 업체들, 즉 음악 수익으로만 먹고사는 사람들, 유튜브 페이지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고도 자신의 음악을 사거나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할 수 있죠, 아시죠, 좀 웃기죠.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음반 훔치기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바이닐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제가 학교를 다녔던 앤아버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점의 음악 선택션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보안 조치에 대해 뭔가 말하더군요. 제가 "정말요?"라고 묻자, "그럼 기독교 상점은요? 도난 걱정도 해야 하나요?"라고 묻자, "아마 놀라실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목사님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목사님들은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목사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여러 번 그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코드판과 바이닐을 뒤지기 시작해서 20장에서 25장 정도 되는 앨범을 한 무더기 집어 들고는 그냥 문 밖으로 나갔어요. 나중에 봐요. 그들과 함께 문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판매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거 돈 내는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판매원이 달려나가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음, 이걸 돈 낼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일에 쓰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죄를 합리화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죠.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훔치거나 인터넷에서 음악을 훔치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분배하시는 방식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잠을 자는 건 어떨까요? 네, 아시잖아요, 금피 말이에요.

얼마 전 버지니아주 노퍽의 한 지역 사회 서비스 위원회 직원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직원은 12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니다. 12년이나 말이지요. 시의회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 조금 부끄럽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8시간 근무 중 최소 3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고용주에게서 돈을 뜯어내면서 일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90%가 매일 최소 30분을 낭비한다고 답했고, 평균적으로는 그보다 몇 시간 더 낭비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2%는 거의 일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높은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격이 비싼 것도 당연하죠. 우리 모두 높은 가격에 대해 불평하지만, 사람들이 회사 돈을 뜯어내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통받습니다. 신의 것을 훔치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둑질합니까?" 십일조와 헌금에 있어서, 너희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너희가 받은 것들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전과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봉사도 했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십일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살인이 쓸모없어졌다는 말은 하지 않고, 누군가 그 법에 대해 도둑질을 한다면, 그냥 "도둑질하는 법은 쓸모없어졌다"라고만 말하죠. 하지만 십일조가 쓸모없어졌고 현대 기독교 생활에 자리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기에 관련된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 해 줄게. 퍼시벌이라는 남자가 있어. 그의 부모님을 용서해 줘.

그런데 퍼시벌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퍼시벌은 아름다운 호숫가에 오두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육촌인 마틸다가 퍼시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지역에서 일을 좀 하게 되어 몇 달 동안 그의 오두막에서 묵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음, 물론이지, 퍼시가 말했어. 왜 안 되냐고? 있잖아. 한 달에 200달러만 보내주면 돼.

그 돈으로 공과금도 충당하고, 모든 비용, 마모나 파손 같은 것도 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마틸다는 "문제없어요"라고 말해요.

한 달에 200달러라니, 정말 좋은 거래지? 퍼시의 오두막을 쓰고 매달 조금씩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첫 달이 지나고 마틸다는 퍼시에게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아.

그래서 퍼시가 마틸다에게 전화를 걸어 "마틸다, 내 200달러 어디 있어?"라고 묻습니다. 아시죠? 퍼시는 "네 200달러 어디 있어?"라고 묻지 않고 "내 200달러 어디 있어?"라고 묻습니다. 그건 마틸다에게 빚진 돈이고, 약속한 돈입니다. 마틸다는 별장을 소유하는 혜택을 받고, 그 대가로 마틸다에게 200달러를 주어야 합니다. 마틸다는 "아, 있잖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마틸다가 퍼시에게 10달러를 보내는데, 다음 달에도 또 돈을 보내지 않아요.

퍼시가 마틸다에게 전화해서 "마틸다, 매달 200달러 보내야 했잖아."라고 정중하게 알려줬죠. 그러자 마틸다가 "아, 맞아. 깜빡했네.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10달러를 더 보내요. 다음 달, 마틸다가 또 돈을 보내지 않자 퍼시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그저 약간 짜증이 난 게 아니야. 마틸다, 넌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내 자원을 뺏어가고 있어.

내 공과금을 써버리다니, 돈 낭비잖아. 자, 이제 약속했던 수표를 보내보는 건 어때? 마틸다가 그에게 20달러 수표와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적힌 쪽지를 보내.

그런데 마틸다는 계속 오두막에 머물러요. 퍼시는 이제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오두막으로 가 보니, 집 앞에 크고 새 캐딜락이 놓여 있더라고요.

마틸다가 나왔는데,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도 아주 예쁘게 하고 있었어. 퍼시가 "와, 마틸다, 네가 꽤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했어. 그러자 퍼시가 "있잖아, 내 돈으로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다고."라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여기 나타나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군요. 결론은 뭐죠? 결론은 마틸다가 도둑이라는 겁니다. 정말 도둑입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고, 목사님이 십일조가 성경적 원칙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계발해야 할 훈련이라고 일깨워 주면 분개하고 화를 내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둥번개를 내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그게 좋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이 소유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 소유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계명의 핵심 원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말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삶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9차시, 8계명 -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